

2017 새 설계 **박태선** 농협광주본부장

“로컬푸드 광주 통합시스템 구축하겠다”

‘빛찬들쌀’ 마케팅 체계화 박차

농번기 농가 체험 프로그램 강화

봉사단 활동 활성화...이웃돕기 노력

“농협광주지역본부 브랜드인 ‘빛찬들쌀’의 가치를 높여 제값을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로컬푸드 광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임 박태선 농협광주본부장은 다른 지역 쌀브랜드에 비해 맛과 질은 좋지만 다소 알려지지 않은 ‘빛찬들쌀’의 체계적인 마케팅을 강조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만 농가의 소득이 늘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농촌은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농가 소득의 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우리 농협을 둘러싼 경영 여건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농협은 내부적으로 혁신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농촌이 풍요롭고 농민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섬김의 지도력’으로 소통하며 모든 과제를 하나하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협동조합 이념을 가슴깊이 새겨 농민과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항상 깨어있는 광주본부부



만들고,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농산물 판매사업에 힘을 쏟겠다”면서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농업인 속으로 다가가는 현장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농민의 숙원사업인 지자체 협력사업 등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밤 농협 임직원의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업인과 임직원간, 계통간, 지역농협간, 그

리고 지역사회와 공감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해 지역사회와 함께 신뢰받는 광주농협을 구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상호금융을 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대표 협동조합 금융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장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본부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사랑의 1004운동과 여직원 봉사단체인 가인회 활동도 더 활성화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깊고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농업인’으로서의 마음가짐도 잊지않았다.

박 본부장은 “소중한 농업인과 함께하며 사랑받고 신뢰받는 농협이 되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농심을 안고 농업인 결의로 달려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광주본부로 나아 가겠다”면서 “농업·농촌이 없는 농협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변화와 혁신에 보다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선 영농현장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고객을 함께하면서 경륜과 덕망을 겸비한 조합장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쇠는 고열과 냉각이라는 극단의 고충과정을 거쳐 새로이 태어난다, 그 격변의 치열한 드라마가 없었다면 자기만의 모양과 특성을 지닌 쇠로 거듭나지 못한다”면서 “농협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둘러싼 수많은 위협과 도전들이 농협과 농촌을 보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기자 kroh@/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41.95 (-3.69)
- ↓ 금리 (국고채 3년) 1.61% (-0.02)
- ↑ 코스닥 642.48 (+2.69)
- ↓ 환율 (USD) 1186.30원 (-20.10)

경기 부양 187조원 쏟아

전년보다 8조원 늘어 사상 최대...1분기 25% 집행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상 최대인 187조원 가까운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은 올해 186조7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8조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며 “1분기에 연간 계획의 25%인 46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분기 집행률은 23%(42조7000억원)였다.

기관별 올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산은 62조5000억원, 기은 58조5000억원, 신보 45조7000억원, 기보 20조원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에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128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기은을 통해 12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거 비슷한 제도였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신보·기보 특별보증 비율 40%보다 높은 60~7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대상 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도 상환유예, 만기 연장 등으로 유동성을 공동지원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2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는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85조원을 지원한다. 시설운영 자금 대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금융위는 기술력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기술금융도 확대 공급한다. 올해까지 누적기준으로 기술금융 대출은 80조원, 투자는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재정자금과 결합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 지원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활성화, 독립투자 자문업 허용 등으로 금융권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니로’ 사면 유류비 50만원 지원

기아자동차는 1월 중에 하이브리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니로’를 출시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아차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전원에 유류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현대차도 유류비를 결제하는 경우 누적 사용금액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추가로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아차는 니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보장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우선 니로 출고 고객 중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는 고객에게 차량 출고 후 100일 이내에 전/후방 범퍼, 전면유리, 사이드 미러에 스크래치가 발생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평생 보증, 중고차 가격을 최장 3년간 최대 62%까지 보장해주는 ‘중고차 가격 보장’도 실시한다. 이밖에 기아차는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 보유 고객이 K5 하이브리드, K7 하이브리드, 니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하이브리드 우대 특별 판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단편영화 사랑 6월까지 12편 기내 상영키로

아시아나항공은 제14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ISFF) 우수작을 엄선해 이달부터 기내 상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국내 경쟁부문 대상을 받은 ‘플라이투더스카이(Fly To The Sky)’와 국제경쟁부문 아시아프락상을 수상한 ‘시행착오(Trial & Error)’ 2편을 상영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총 12편을 상영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제단편영화제 후원사로서 수준 높은 단편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단편영화를 사랑하는 영화 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적은 단편영화에 대한 상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AISFF를 지속 후원했다. AISFF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 국제단편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수입차 역성장...지난해 판매 8% 감소

폭스바겐 63%·아우디 49% 폭락...벤츠 브랜드별 판매 1위

폭스바겐그룹 ‘디젤 게이트’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입차 판매가 전년 대비 7% 넘게 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작년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전년 24만3900대에 비해 7.6% 감소한 22만5279대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주력 차종이 정부의 판매금지 차분 대상에 오른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판매 실적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만3178대를 팔았다. 이는 2015년의 판매실적인 3만5077대와 비교해 63.2% 폭락한 수치다. 작년 12월에는 단 한대의 판매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폭스바겐그룹의 고급차 브랜드인 아우디도 48.6% 감소한 1만6718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브랜드별 판매 1위는 작년 6월 출시된 신형 ‘E-클래스’의 인기에 힘입어 메르세데스-벤츠(5만6343대)가 차

지했다. 2015년에 수위에 올랐던 BMW는 4만8459대를 팔아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2016년 연간 베스트셀링카 1위 자리에는 BMW의 대표 모델 520d(7910대)가 올랐다. 벤츠 E-300(6169대), 렉서스 ES300h(6112대)가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벤츠의 선전에도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판매 급감으로 전체적인 독일차 판매는 동반 하락해 전년 대비 17.5% 떨어진 13만7885대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3만5029대), 영국(2만3254대), 미국(1만8281대) 순이다.

연료별로는 디젤 13만2279대, 가솔린 7만6284대, 하이브리드 1만6259대, 전기 457대 순이다.

이중 디젤 수입차의 판매 비중은 68.8%로 전년 대비 10.1%포인트 줄어 들었다. 협회는 올해 수입차 시장 규모를 올해보다 1만2000여대 늘어난 23만8000대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1층: 약국, 제과점, 편의점 기타
2층: 내과, 검진센터
3층: 안과, 피부·비뇨기과
4층: 치과, 이비인후과
5층: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6층: 물리치료실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3층 ~ 6층 : 2층과 동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063) 653-7806 | **010-4922-3317**

분양문의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은열뜸기, 아쿠뎀,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한국의 18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